

대표 경관과 사회적 장소의 변천을 통해 본 역사도시 진주의 지역성*

하혜경* ·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I. 서론

본 연구는 지역성을 시각적, 물리적 측면의 '경관'과 상징적, 활동적 측면의 '장소'로 구성되는 총체로 접근하여 대표 경관과 사회적 장소를 통해 변화하는 역사도시 진주의 지역성을 조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성에 접근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경관과 장소적 측면에서 대표경관과 사회적 장소이라는 연구관점을 도출하였고,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객관적 자료 분석, 주관적 기록 해석, 설문조사와 이미지맵, 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첫째, 경관과 장소는 지역성과 어떤 관계이며, 어떤 작동을 하는가? 경관과 장소의 측면에서 다층적 의미인 지역성을 설명하는 개념 틀을 고안한다. 둘째, 기존의 시각적 대표경관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활동장소인 사회적 장소가 중첩되는 지역거점을 근거로 변화하는 진주의 지역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역사도시 진주의 지역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역거점을 도출하여 공공장소로서 활용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도시의 시대별 공간변화 및 지역민의 집단 활동과 배경이 된 장소의 '사실'은 객관성이 담보된 자료를 분석했으며, 이들이 남긴 장소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기록물을 해석하였다. '현장조사'는 답사, 시민대상 설문조사 및 이미지맵,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가 포함되었다.

II. 연구 결과

첫째, 지역성을 설명하는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지역성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논의되어 개념, 유형, 구조 등을 정리하기 어려우나, 전통적인 개념에서 지역성은 '다양성 속에서 나타나는 한 지역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된다. 최근 지역성에 관한 연구의 주된 흐름은 지역성이란,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나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무언가가 아니라, 지역의 집단에 의한 지속적인

변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간과 장소의 상호관계를 분석해 찾으려는 장소성은 지역성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기존의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논하던 주관적, 상징적,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지역의 집단에 의한 사회적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장소성으로만 지역성을 논하기에는 범위가 협소하므로 환경계획학의 경관과 지리학의 장소 연구의 변천을 통해 각 연구의 주요 특성인 가시적 측면의 '대표경관'과 활동적 측면의 '사회적 장소'라는 연구관점은 장소성 형성요소의 확장된 개념이자 상호 보완되는 변증법적인 관계로 지역성의 단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둘째, 대표경관과 사회적 장소가 중첩되는 지역거점을 근거로 역사도시 진주의 변화하는 지역성이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조선시대 진주목은 절벽지형 위에 축조된 요새(要塞) 진주성을 중심으로 비봉산을 주산(主山)으로 풍수지리적 경관체계에 의해 조성된 읍치가 분리된 이원화된 도시경관 구조를 이루었다. 진주성과 객사 앞 장터, 남강변을 지역거점으로 이원화된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왜구(倭寇) 침입에 대동단결한 방어의식, 근왕(勤王)사상에 맞선 민란 등 외부 침입과 기존 질서에 '저항' 속에서도 논개를 기리는 별채(別祭)를 노래와 춤이라는 지역민 전체의 '풍류' 문화로 승화시킴으로써 진주목의 지역성이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 진주군은 광복 이후 현대 진주도시경관 형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당시 경남도청으로서의 위상으로 식민지 초기에 근대화를 경험하였다. 진주성, 진주좌·진주역, 남강변을 지역거점으로 이원화된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형평운동과 같은 사회주의 운동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맞선 '저항' 의식이 나타났고, 오히려 근대시설을 활용하여 시민저항의식을 키웠다. 조선시대 교방(敎坊)문화는 쇠퇴하였지만 옹골대놀이, 소싸움, 의암별제 등 여전히 노래와 춤이 섞인 지역민들의 집단 활동은 '풍류' 문화로 지속되면서 진주군의 지역성을 유지하였다.

광복 이후 진주시는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 등의 영향으로 남강댐, 진양호, 상평공단 등 중앙 정부의 주도로 근대산업 시설이 들어섰다. 진주성, 구 진주시청이 있던 본성동 일대, 남강댐이 있는 진양호 일대, 진주역·대동공업사 일대, 상평공단과

*: 본 논문은 '대표경관과 사회적장소의 변천을 통해 본 역사도시 진주의 지역성'이라는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2020. 8)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진양군청 일대 등을 지역거점으로 이원화된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노동자운동·환경운동과 같은 인권보호와 남강의 환경운동 등 압축성장기 개발지향주의에 맞선 '저항' 운동이 발전되었다. 진주에서 시작된 최초 지방축제인 영남예술제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지역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 활동으로 '풍류' 문화는 '축제'로 정착되면서 진주의 지역성은 차별성을 지니게 되었다.

현대 통합진주시는 지방분권에 따라 혁신도시가 조성된 시기로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확장되면서 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다. 중앙생활권, 강남생활권, 상평생활권, 평거생활권, 혁신·가호생활권 등 생활권마다 다양한 지역거점이 형성되었으며, 각 생활권마다 다원화된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현대 진주의 지역성에는 더 이상 '저항' 의식이 두드러지게 발견되지 않으며, 공공성을 지닌 장소보존에 실패하여 많은 공공시설들은 민간 소유로 상업시설로 변용(變容)되고 있다. 남아 있는 것은 '풍류' 문화가 승화된 개천예술제로 현대 진주 시민들은 진주성 일대와 남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축제의 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굴된 지역거점의 장소성 변천을 통해 역사도시 진주의 지역성을 진단하여 공공장소로서 역할을 제안하였다. 진주의 대표경관이자 사회적 장소가 교차되는 지역거점들은 진주의 지역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장소들이다. 지역거점의 변천 유형은 보존장소, 변형장소, 멸실장소, 형성장소, 원형장소로 구분된다. 이들은 S형의 남강과 T자형의 확장된 가로축의 결절점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는데, 구 객사 앞, 구진주역 앞, 상평공단 로터리, 혁신도시 롯데몰 앞, 개양오거리, 진양호 등은 잠재력 있는 결절장소의 역할을 하므로 '공공성'을 증대시켜 진주의 지역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역거점을 형성·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진주의 지역성을 압축하며 지속성을 지니는 지역거점으로는 '남강'으로 진주민들의 원형적 장소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정책적인 보존·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III. 결론

본 연구의 한계는 시대별로 대중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기

록물을 찾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기록물의 계급적 편향성과 현대 시민들의 면담을 해석함에 있어 주관적 개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경학 너머 지리학, 도시계획·설계학 등의 경관연구에 총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여 지역성을 진단·규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지역성을 압축하는 지역거점의 현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보존장소·변형장소·멸실장소·형성장소·원형장소' 등 5개의 장소 유형으로 구분하여 타 역사도시에서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케빈 린치(Kevin Lynch, 1960)가 제시한 도시경관의 이미지 5요소인 '랜드마크(landmark)',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통로(path)', '경계(edge)'에 '사회적장소(social place)'의 개념을 추가하여 사회적 활동을 추가한 도시 이미지 분석 틀을 제안하였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역사도시 진주의 변화하는 지역성을 규명하고, 지역성을 함축한 대표경관과 사회적장소가 중첩된 지역거점을 장소자원으로 제시함으로써 미래 진주의 도시환경정책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1. 김택현(2001) 역사 도시 진주의 경관독해, 문화역사지리 13(2).
2. 김한배(1998) 우리 都市의 얼굴 찾기: 한국 도시의 경관변천과 정체성 연구, 서울: 태림문화사.
3. 서울시(2019) 도시재생, 앞으로의 10년, 심포지엄 자료집.
4. 진주시(1995) 晉州市史 上, 中, 下, 1판, 진주시, 경남.
5. 진주시(2008) 진주 도시계획사.
6. 하혜경, 김한배(2019) 진주 지역사회운동 진원지의 장소성과 그 변천: 근현대(조선말기-현대)시기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4(1).
7. Augé, M.(1995)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Trans. by J. Howe, London & New York: Verso.
8. Clay, G.(1973) Close-Up: How to Read the American C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9. Lefebvre, H.(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by D. Nicholson-Smith, Oxford, Blackwell.
10. Löw M.(2008) The constitution of space: The struction of spaces through the simultaneity of effect and percep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1(1).
11. Lynch, Kevin(1960)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2. Relph, E.(2005[1976]) Place and Placelessness(장소와 장소상실), 김택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서울.
13. 勝田伊助(박노정 역)(1989) 晉州大觀, 진주: 진주신문사.